

제 2 주 제

충남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김 난 영

(선문대학교 국제레저관광학과)

충남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김 난 영 (선문대학교 국제레저관광학과)

I. 서론

관광산업은 높은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의 핵심적 분야로 주목받아 왔다. 관광산업은 인구와 산업측면에서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이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유도하는 핵심사업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의 30%, 지역특화발전특구의 24%,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지역발전 프로젝트의 30%가 관광관련 사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예로 100만명의 관광객을 유인하며 큰 인기를 모았던 화천산천어축제의 경우 인구 2.5만명의 화천에 예산 7.5억을 투입하여 395억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총리실 외, 2009).

충청남도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07월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는 서해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충남의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지속으로 2009년에는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정체를 2010년 메가 이벤트로 연계하였다. 대전, 충북과 함께 손잡고 추진하는 '2010 대 충청방문의 해'와 '2010 충남 민속문화의 해'를 추진하고 2009년의 pre-대백제전을 완성시킨 '대백제전'을 동시에 개최하면서 충남 관광산업의 일대전기를 마련하고자하는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2006년 충남 지역주민들의 의식조사결과, 충남의 도민은 충남이 첨단산업 중심지(26.7%), 행정중심지(25%), 관광여가산업 중심지(21.9%) 순으로 지역이 향후 발전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충남의 시군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의 경우는 무엇보다 관광·휴양도시로의 육성을 가장 중요한 발전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 서해안 일대 시군의 경우는 관광산업 육성에 가장 큰 관심을 표출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들 또한 관광산업이 충남의 대표적인 지역사업의 하나로 성장하길 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충청남도, 2008).

이러한 충남 지역민의 바램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서해안 유류유출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충남의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달려온 민선4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충청남도 관광산업의 현위치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민선5기 충남도정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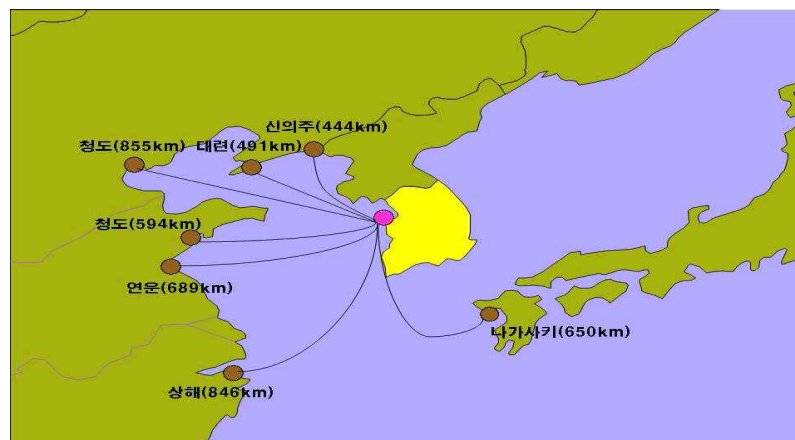
II. 충남 관광여건 및 현황분석

1. 지역환경분석

충남의 지역현황은 입지여건, 자연환경, 인문환경, 지역경제,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충청남도, 2008).

충남의 대외적 입지여건은 [그림 II-1] 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환해양권 중심에 위치한 요충지역이다. 중국 관문항인 대련항과 청도항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류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양과 내륙 연계가 가능한 항만개발 적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동북아 교류거점을 구축하는데 있어 용이하다. 대내적 입지여건은 국토의 중심부이며 교통의 요충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면서 수도권의 입출여력을 흡수하여 비수도권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이 수행가능하다. 또한, 고속도로, 철도 등이 충남지역을 동서와 남북으로 통과하거나 계획되고 있어 지역내 도로망과 연계체계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림 II-1] 동북아에서 충청남도의 위상



자료 : 충청남도(2008).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p13.

충남의 자연환경은 전체적으로 저지대 지형이며, 경사도 완만하다. 해안선은 리아스식 해안이며, 도서가 259개로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많고 그 중 태안반도가 충남에서 가장 큰 반도이다. 대표적 하천으로는 금강, 안성천, 삽교천이 있다. 충남의 인문환경 중 행정구역의 총면적은 2005년 기준으로 국토 전체면적의 8.6%이며, 행정구역상 7개시와 9개군으로 나뉜다. 충남 총인구는 전국의 4% 천안의 인구비중이 2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는 연평균 0.5%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노령인구는 13.3%로 전국의 8.9%를 상회하고 있다. 충남의 도시지역 면적은 충남 전체면적의 10.8%로 전국의 17.1%보다 낮으며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 6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도시지역내 용도지역 분포에 있어서는 농림지역이 5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지역총생산액이 전국의 5.4%에 달하고, 산업별 구성비 측면에서는 전국과 비교해 농림어업 비중이 3배 정도 높은 반면, 서비스업 부분은 전국 평균치 6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추이에서는 1차산업 비중이 낮아지고, 2차산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산업화가 빠르게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구조는 전국평균과 비교해 1차산업 비중이 높고, 2차 및 3차 산업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간접자본시설면에서는 도로포장률이 72.8%에 달하며, 주택 및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수준은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시설은 총 5,929명을 수용할 수 있는 92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관광자원 현황분석

충남의 관광자원 현황은 관광자원, 자연자원, 인문문화자원, 역사문화자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문화체육관광부, 2009; 충청남도, 2009;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10). 충남의 관광자원 현황은 <표 II-1>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표 II-1> 충남 관광자원 현황

구분	개수	내용
관광자원		
관광지	25	대천해수욕장, 삼교호, 구드래, 태조산, 신정호, 안면도 등
관광특구	2	보령해수욕장, 아산시 온천
자연자원		
국립공원	2	계룡산, 태안해안
도립공원	3	칠갑산, 대둔산, 덕산
군립공원	1	연기 고북저수지
자연휴양림	14	태학산, 금강, 성주산, 오서산, 영인산 등
해수욕장	39	대천, 무장포, 만리포, 천리포, 꽃지, 몽산포, 학암로 등
온천지구	30	온양, 도고, 아산, 덕산, 마곡, 홍성 등
인문자원		
관광농원	67	천안시, 태안군, 연기군, 서천군 등
녹색농촌체험마을	62	서천군 남당마을, 부여군 백제인동마을 등
어촌체험마을	11	서천군 송석마을, 태안군 대야도마을 등
역사문화자원		
문화재	905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사찰	80	동학사, 수덕사, 갑사, 마곡사 등
향토축제	70	한산모시문화제, 보령머드축제, 금산인삼축제 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충청남도(2009). 충남도정

먼저, 관광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관광지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 접근이 용이하고 개발제한이 적어 관광정책적으로 개발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2008년 12월기준 전국의 관광지

지정 현황은 총232개이며 이중 충남에 25개(약11%)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각종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관광단지는 2009년 현재 전국에 총21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충남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관광관계법령 배제 혹은 완화와 서비스 안내체계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관광특구는 전국의 총26개 중 충남에는 2곳, 아산시온천과 보령해수욕장이 지정되어 있다.

충남의 자연자원 중 자연공원은 총5곳으로 이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태안해안 국립공원은 해안절경과 육지를 대표하는 해안공원이며, 계룡산 국립공원은 대표적인 명산이다. 이러한 국립공원의 연도별 탐방객 수를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그 추이를 살펴보면, 태안해안 국립공원의 경우 20개 국립공원 중 대체적으로 낮은 탐방객 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약간의 변동폭은 있으나 관광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08년에는 관광객 23만2천명으로 국립공원 중 최하위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계룡산 국립공원의 경우 20개 국립공원 중 대체적으로 중간정도의 탐방객 수를 보이다 2008년에는 관광객 202만명으로 전년대비 65% 상승하였다.

자연휴양림은 전국에 총114개가 있으며 이중 충남에 14개가 있다. 특히, 자연휴양림은 충남의 시군에 고루 포진하고 있으며 이용현황에 있어서는 2008년도 기준으로 2,168,722명으로 전국의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약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강원도 22개 자연휴양림 이용객 894,900명 보다 약2.4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연휴양림 이용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은 충남에 39개가 있으며, 지역적으로 태안군에 32개소, 보령시에 5개소, 당진군과 서천군에 각1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태안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7년을 기준으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태안군 13,803,840명, 보령시 12,449,750명, 서천군 2,221,270명, 당진군 146,020명 순으로 나타나 보령시 해수욕장이 5개소에 불과하나 태안군과 그리 차이나지 않는 이용현황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2007년 12월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사고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50%정도 이용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에는 보령에 16,991,676명(전년대비 19%증가), 태안에 14,704,320명(전년대비 202.9%증가), 서천군 412,113명(전년대비 17.6%감소), 당진군 10,100,907명(전년대비 14.7%증가)으로 나타나 서천을 제외하고 대폭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천지구는 전국에 총417개가 있으며, 이중 충남에 30개가 있어, 경북 90개, 경남 50개, 강원과 경기 49개 다음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현황 측면에서는 2008년 1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이용객 9,692,000명이 찾은 경남 온천지구와 비교해 충남 온천지구 이용객이 9,359,000명으로 비슷한 수준의 이용현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온천지구가 90개인것을 감안한다면, 충남의 온천지구의 이용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광농원은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지역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총430개가 있으며, 그 중 충남에는 67개가 있어, 71개가 있는 전남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지정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전국에 총364개 중 충남에 62개가 있어 전국의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촌체험마을은 전국에 112개 마을(17개 마을은 장래조성계획) 중 충남에 11개 마을(4개 마을 장래조성계획)이 있어, 전남의 31개(2개 마을 장래조성계획), 경남의 18개 마을 다음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의 어촌체험마을은 서천군과 태안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문화자원의 대표적인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로 구분된다. 전국의 문화재는 총10,272개가 있으며, 이 중 충북지역에 국가지정문화재 203개, 시도지정문화재 674개, 등록문화재 17개로 총905개의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북 1,718개, 경남 1,395개, 서울 1,248개, 전남 1,089개 다음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27개, 보물 91개, 사적 47개, 사적 및 명승 1개, 명승 1개, 천연기념물 14개, 중요무형문화재 3개, 중요민속자료 19개가 있으며, 시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61개, 무형문화재 34개, 기념물 157개, 민속자료 19개, 문화재 자료 303개가 있다.

특히, 이러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충남지역에서도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이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해설과 이해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관광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충남에 총 16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소양교육과 국내외 문화유적 답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과 더불어 민속공예 상품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나아가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공주시 웅진성에서 수문병교대식 행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찰은 충남에 80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찰은 사찰문화 체험을 위한 숙박시설로 상품화하여 전국적으로 템플스테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국에 100개의 템플스테이가 있으며 그 중 충남에는 9개가 있다. 전체 템플스테이 이용객은 큰 상승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 내국인 이용객이 92,694명, 외국인 이용객이 20,106명으로 총112,800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총이용객 수는 내국인이 많지만, 매년 이용객 증감률 측면에서는 외국인 이용객 증가율이 내국인보다 두 자릿수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향토축제는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및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충남에서는 70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로 선정된 축제는 7개로 <표 II-2>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보령머드축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함께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지정받았다. 그 외 최우수 축제 1개, 우수축제 2개, 유망축제 2개, 예비축제 1개를 지정받았다. 보령

머드축제, 공주부여백제문화제는 내외국인 관광객 모두의 참여율이 높고, 강경젓갈, 천안흥타령, 금산인삼축제의 경우는 내국인 관광객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유발효과 측면에서는 금산인삼축제가 가장 높으며, 공주부여백제문화제, 보령머드축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주부여백제문화제는 예비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내외국인 관광객 참여율이 높고, 경제적 유발효과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 충남 문화관광축제 주요결과

(단위 : 명, 백만원)

축제명	지정구분	내국인	외국인	총계	경제적 효과
보령머드축제	대표	2,183,000	83,000	2,266,000	54,660
금산인삼축제	최우수	969,537	7,208	976,745	80,134
강경젓갈축제	우수	1,141,000	13,425	1,154,845	42,655
천안흥타령축제	우수	1,130,000	20,000	1,150,000	20,459
한산모시문화제	유망	140,000	10,000	150,000	208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유망	531,930	21,000	552,930	9,394
공주부여백제문화제	예비	1,428,530	110,190	1,538,720	68,07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p184.

3. 관광사업체 현황분석

충남의 관광사업체현황은 관광진흥법상의 분류기준을 중심으로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유원시설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문화체육관광부, 2009). 국제회의업과 카지노업은 충남지역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먼저, 관광숙박업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3>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관광호텔의 경우 1025개,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2178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 보유객실이 부족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용률에 있어서는 44%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호텔의 지역적 위치를 살펴보면 과거의 대표 온천관광지인 아산지역에 관광호텔 6개와 휴양콘도미니엄 5개가 집중되어 있으며, 근처 천안에 관광호텔 2개와 가족호텔 1개가 위치하고 있어 과반수이상의 관광숙박업체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광편의시설업에 등록되어 있는 관광펜션업은 소규모 고급민박시설로 주요 숙박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 총18개 업체에 249개 객실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으로는 강원(43개), 제주(41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구분	호텔업									휴양 콘도 미니업	총계
	관광호텔						수상관 광호텔	가족 호텔	전통 호텔		
	특1급	특2급	1급	2급	3급	미정					
업체수(개)	-	3	2	7	-	5	-	1	-	10	28
객실수(개)	-	329	169	289	-	238	-	100	-	2,078	3,203
이용률(%)	44.36% (외국인15%, 내국인 3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여행업은 <표 II-4>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내국인의 국외여행 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국외 여행업체와 내국인의 국민관광 수요충족을 위한 국내여행업체가 총여행업체 중 3%만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여행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단위 : 개(%))

구분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총계
충남	-	144(3)	177(5)	321(3)
전국	705(100)	5,329(100)	3,616(100)	9,650(1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관광객이용시설업은 변화하는 관광여가행태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휴양시설로 <표 II-5>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휴양업 4곳이 영업 중인데, 종합휴양업은 천안상록리조트, 전문휴양업은 아산스파비스, 아산파라다이스, 금산의 서대산레저타운으로 대부분 지역적으로 아산,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현황

(단위 : 개(%))

구분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관광 기념품판매업
충남	3(8)	1(6)	-	-	-	-
전국	38(100)	18(100)	-	7(100)	2(100)	117(1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관광편의시설업은 앞에서 살펴본 관광업 외에 사업이나 시설 중 관광진흥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표 II-6>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관광극장유흥업, 관광식당업, 관광펜션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관광편의시설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 관광편의시설업 등록현황

(단위 : 개(%))

구분	관광유흥 음식점업	관광극장 유흥업	외국인전 용유흥음 식점업	관광 식당업	시내순환 관광업	관광 사진업	여객자동 차터미널 업	관광 펜션업	관광 삭도업
충남	-	10(6)	-	49(32)	-	-	-	18(12)	-
전국	77(100)	171(100)	197(100)	1,532(100)	12(100)	20(100)	-	152(100)	6(1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유원시설업은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총217개 업체 중 충남에 13개 업체(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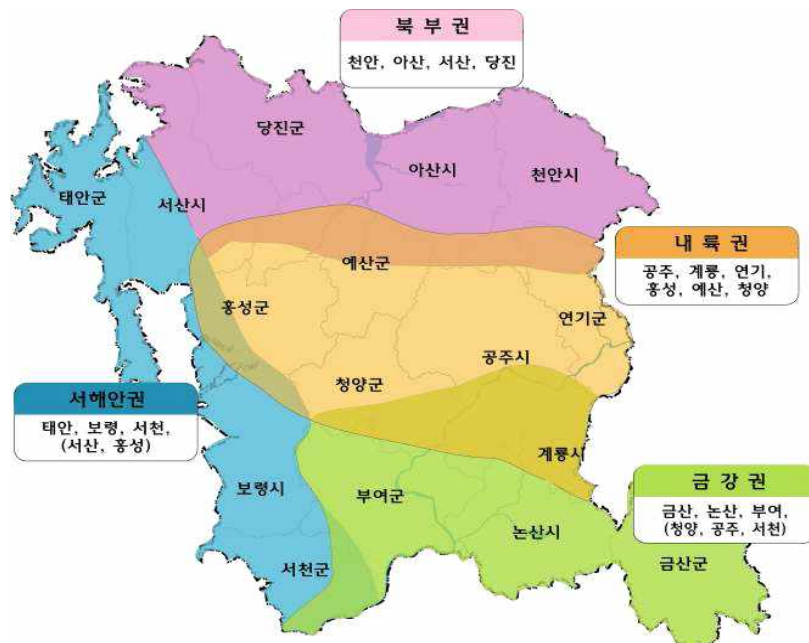
4. 주요 관련계획 검토

주요 관련계획 검토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동·서·남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국토해양부 등, 2009; 문화체육관광부, 2009; 충청남도, 2008, 2009).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충남 관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목표로는 개성과 전통을 살린 문화관광 창출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개발전략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차원에서 충남은 개성 있는 지역문화권 형성과 특화된 관광자원 개발전략을 세웠다. 주요 지역개발사업으로 서해안과 백제와 내포문화권을 연계한 관광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안면도를 국제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교통망으로 당진-울진, 서천-영덕 고속도로, 대전-서천 고속화도로, 충청철도(보령-조치원), 서해안철도(야목-안중-예산) 등의 건설과 장항선 개량 및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한다.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그림 II-2] 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충남의 권역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북부권은 환황해경제권의 전진기지, 충청권의 신성장 거점지대 육성, 서해안권은 해양산업·신산업(융합)벨트, 해양·휴양·관광의 메카로 육성, 내륙권은 국가·지방 중추행정 연계축, 지역균형발전 촉진지대로 육성(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을 연계하여 역사·문화·녹색관광벨트구축), 금강권은 금강역사·문화·생태관광벨트, 생명산업과 전원도시화지대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을 발전방향으로 하고 있다. 특히, 권역별 발전촉진을 위해 4대 거점사업으로 백제문화권개발, 내포문화권개발, 서해안 관광산업벨트 조성, 금강권 광역복합개발을 선정하였다. 특히, 금강권에서 금강은 수자원, 역사·문화자원, 경관·환경자원, 토지자원, 다양한 농촌 어메니티자원 등을 활용하여 금강권광역복합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충남 남부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연생태환경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명소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테마형 관역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근교·관광농업 활성화와 다양한 형태의 도시근교형 전원주거지 개발, 수자원·관광개발 및 도시근교형 산림·수변생태공원 조성 추진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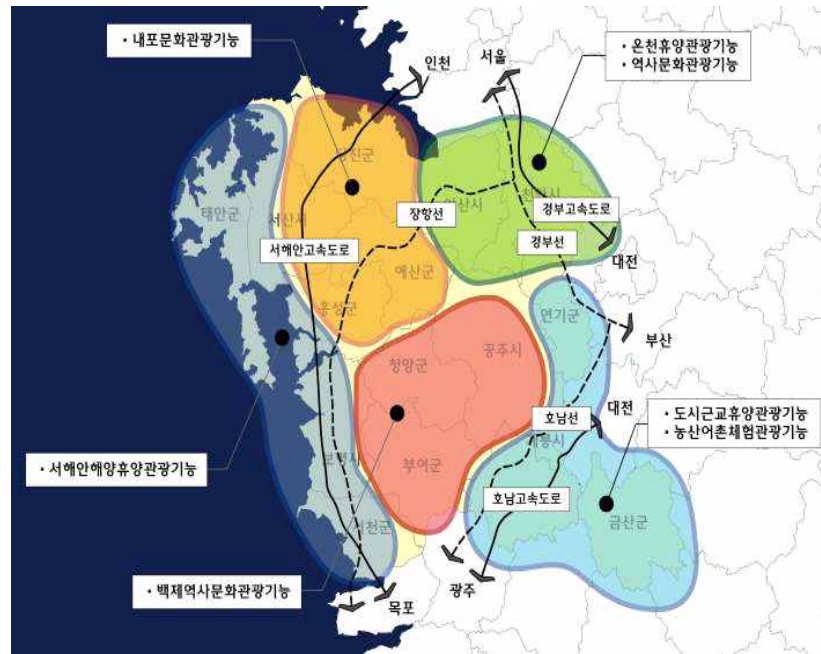
〔그림 II-2〕 충청남도 4대 개발경영권



문화체육관광부가 10년에 한번 전국적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수립하는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은 21세기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관광대국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매력적인 관광한국,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관광한국, 관광자원의 가치를 창조하는 지식기반형 관광한국,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민참여형 관광한국,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개방형 관광한국 등의 계획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 개발방향은 전국을 16개 시도로 구분하고 관광권역별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충남지역은 ‘서해안 해양관광 중심지역의 육성’을 주요 개발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충남도내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해 [그림 II-3]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권역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즉, 보령, 서천, 태안군 지역은 해양관광권, 천안과 아산지역은 역사온천휴양권, 공주, 부여, 논산, 청양군은 백제금강문화 관광권, 서산, 홍성, 예산, 당진군은 내포문화권, 계룡, 금산, 연기군은 대전 근교권으로 권역화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도시의 한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특정지역에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는 계획적 조성공간으로, 정주하며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관광단지와 차별화된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이다. 이러한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3개 지역 중 충남의 태안이 2007년 가장 먼저 착공되었다.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환경 지역친화적 도시, 동북아 최고 관광휴양도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휴양 도시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볼거리, 놀거리, 쉴거리, 먹거리, 살거리, 정주 및 생활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고품질 미래형 관광레저 단지 개발을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림 II-3] 충청남도 관광개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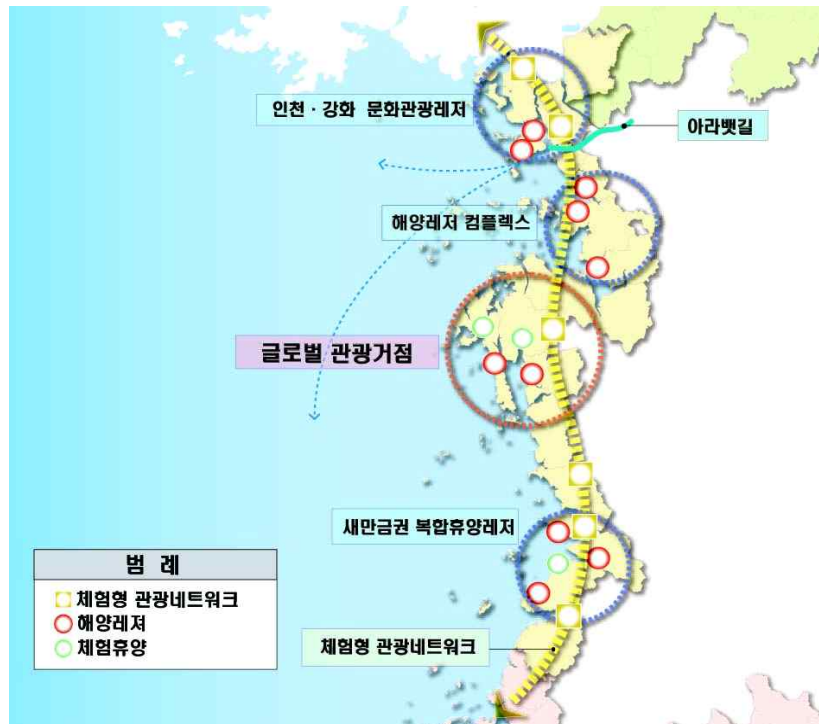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2009).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p38.

한편, 정부는 인접한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을 연계하여 관광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고자 6대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서해안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충남을 포함해 경기, 전북, 전남에서 서해안과 연결한 20개 시군(충남에서는 아산, 서산, 보령시, 당진, 태안, 홍성, 서천군 7개 시군을 포함)을 대상지역으로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해안권의 계획수립 방향은 인문자연 특성을 감안한 권역별 관광개발, 집객력 있는 해양관광거점 조성 및 연계관광지 개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친환경적 지속가능 관광개발, 실천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개발의 추진이다.

2009년 12월 발표한 동·서·남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에 따르면, 해안권별로 자연, 산업 등에서 각각 고유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려한 자연환경과 고유한 지역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글로벌 관광명소화와 함께 고품격 녹색국토를 창출하는 선도역할의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서해안 초광역개발지역은 인천, 경기, 충남, 전북 해안 및 인접한 내륙지역 시도 4개, 시군구 25개, 인근 섬 587개를 포함하며, [그림 II-4]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관광 측면에서는 글로벌 해양 생태 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자 한다. 특히, 동북아의 관광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충남지역(태안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 관광거점을 조성하며, 서해갯벌 등 생태 및 역사문화자원 연계해 생태테마 및 스토리텔링 관광개발 등을 통해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 또한, 미래 관광수요에 대비한 해양레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주요지역별 해양레저 복합단지, 새만금권에는 명품 해양레저도시를 조성하도록 하며, 수도권의 크루즈·해양레저 수요를 위해 아라뱃길 연계루트를 개발하도록 추진 계획 하고 있다.

[그림 II-4] 서해안 초광역권 개발 방향



자료 : 국토해양부 등(2009). 동서남 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p15.

III. 관광시장 여건분석

1. 외국인 국내여행 동향

외국인의 국내여행 동향을 살펴보면(문화체육관광부, 2009), 2008년 약690만명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관광객은 전년대비 7.3% 증가하여 약 509만명을 기록하여 전체 외래 관광객의 73.9%를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관광객이 34.5%, 중국 관광객이 16.9%, 대만 관광객이 4.6%, 홍콩 관광객이 2.3% 그 외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주지역(미국, 캐나다) 관광객은 전년대비 3.9% 증가하여 약74만명을 기록해 전체 외래 관광객의 10.8%를 차지하였다. 구주지역 관광객은 전년대비 5.9% 증가하여 약59만명을 기록, 전체 외래 관광객의 8.6%를 차지하였다. 대양주 관광객은 18.3% 성장해 약13만명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외래 관광객의 1.9%를 차지하였다. 그 외 아프리카주 관광객이 약2만6천명, 국적미상이 약1천6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포의 방문도 약3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 관광객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일본 관광객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 1990년대에 전체 외래 관광객의 과반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일본 관광객은 200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02년도에 잠깐 상승했다가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34.5%라는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시장은 1990년대 이래 서서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전체 외래

관광객의 16.9%를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2009 외래관광객 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 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관광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최근 3년간 한국의 방문횟수를 보면 1회 56.3%, 2회 15%, 3회 8.2%, 4회이상 20.5%로 나타났다. 한국 체재기간은 평균 6박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2박 28.7, 3박 17.9%, 4박 15.7%, 11-60박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형태에 있어서는 개별여행이 49.1%, 단체여행이 42.6%를 나타내었으며, 여행형태별 충지출경비에 있어서는 개별관광이 1,123.6(\$), 단체관광 1,446(\$)로 나타났다. 방문목적에 있어서는 여가/위락/휴가가 40.4%, 사업/전문활동 42%, 친구/친지방문(11.5%), 기타(6.1%)로 나타났다. 한국방문선택시 고려요인으로서는 쇼핑 44.4%, 음식/미식 탐방 41.5%, 경제적인 여행비용 27.2%, 가까운 거리 40.1%, 자연풍경 감상 23.4%로 나타났다. 한국 여행정보 입수경로는 인터넷 55.5%, 친지/친구/동료 48%, 여행사 35.6%, 관광안내서적 29.4%, 보도 15.4%로 나타났다. 여행 동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친구 34%, 직장동료 26.4%, 배우자/연인 23.8%를 나타내었다.

여행시 이용 숙박시설은 호텔 77.8%, 친척/친구집 9.5%, 유스호스텔/게스트하우스/여관 6.4%, 학교/회사기숙사/연수원 4.2%, 콘도/펜션/레지던스 2.1%, 사찰 0.1%로 나타났다. 한국 여행 중 인상 깊은 방문지로 명동 20.7%, 고궁 19.9%, 동대문시장 13.4%, 남대문 시장 14.5%, 남산/N타워 8.9%, 부산 12.6%로 나타났다. 방한기간 중 활동으로는 쇼핑 57.1%, 관광지 방문 48.3%, 식도락관광 33.3%, 업무수행 25.1%, 미팅/회의/학술대회 등 참가 14.1%로 나타났다. 한편, 쇼핑과 관련하여서는 주요 쇼핑품목이 식료품 38.1%, 향수/화장품 23%, 의류 26.6%, 인삼/한약재 17.2%, 김치 18.7% 순으로 나타났으며, 쇼핑장소로는 공항면세점 45.9%, 명동 21.3%, 백화점 28.2%, 소규모 상점 24.3%, 동대문 시장 21%, 시내면세점 15.8%, 대형 할인점 19.6%, 남대문시장 15.1%, 인사동 8.5%, 이태원 5.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한국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측면에서는 88%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목별로는 출입국절차, 숙박, 음식, 쇼핑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관광지매력도, 관광안내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보다는 대체적으로 조금 낮은 보통이상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 이내 관광목적으로 재방문의향은 72.1%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여행에 대한 타인 추천의향에 있어서도 81%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한국 여행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었냐는 질문에는 69%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여행에서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언어소통(55%)으로 들어났다.

한국여행 중 지역별 방문지로는 서울 77.4%, 경기/인천 37.2%, 경상 20.9%, 제주 12.4%, 강원 11.2%, 충청 6.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충청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문지로는 대전(57.9%)의 방문 비율이 과반수를 넘으며, 단양 14.7%, 공주/부여 11%, 금산 인삼타운 10.5%, 대천/보령 8.2%, 수안보 6.5%, 천안 4.1%, 청주 3.4%, 아산 1.2%, 진천 0.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관광객의 경우

대전을 제외 하고 공주/부여, 천안, 단양 순으로 관광객 비율이 높으며, 중국 관광객의 경우는 대전을 제외하고 대천/보령과 단양의 방문비율이 높고, 다음으로 금산인삼타운, 공주/부여 순의 방문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주/부여, 금산인삼타운, 대천/보령의 방문목적은 여가/위락/휴가, 친구/친지 방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안과 아산은 사업/전문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총 외국인 관광객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2008년에는 740,482명의 외래 관광객이 충남을 찾아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외래 관광객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2005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으나 2008년에는 다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계자료가 2005년 이후에는 유료관광지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약간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별다른 특징 없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표 Ⅲ-5>의 통계자료를 참고하면 오히려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Ⅲ-1> 충남 외국인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충남	654,206(12.2)	755,261(15.9)	670,491(11.5)	515,668(8.6)	519,845(8.5)	752,057(11.7)	740,482(10.8)
전체	5,346,118(100)	4,752,762(100)	5,818,138(100)	6,022,752(100)	6,155,046(100)	6,448,240(100)	6,890,869(1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p381.

충청남도(2009). 2009 도정백서. p453.

주 : 2005년부터 유료관광지에 한해 작성

2. 국민 국내여행 동향

국민 국내여행 동향은 2008 국민여행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 2009)를 중심으로 2009 도정백서(충청남도, 2009) 자료를 참고하여 제시되었다. 먼저, 내국인의 국내여행 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 국내여행 참가자 수는 37,391,314명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일 여행 참가자수는 30,461,915명으로 전년대비 0.03% 줄고, 숙박 여행 참가자 수는 31,350,952명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여행 경험률은 총92.3%이며, 국내여행 참가횟수는 숙박여행 2.58회, 당일여행 3.48일로 총6.07회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여행의 경우 1박 2일이 61.3%로 가장 많고, 2박 3일이 26.5%이며, 당일여행의 경우 10-11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22.1%, 6-7시간은 20.4%로 나타났다. 국내여행 목적은 숙박여행의 경우 친구/친지 방문이 50.3%로 가장 높고 여가/위락/휴가가 41.5%로 뒤를 이었다. 당일여행의 경우는 여가/위락/휴가가 61.9%로 가장 높고 친구/친지 방문이 25.7%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여행시 동반자 수는 숙박이나 당일여행 모두 2-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반자 유형으로는 가족/친지의 뒤를 이어 친구/연인이 높게 나타났다. 국내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으로는 자가차량이 숙박여행의 경우 70.2%, 당일여행의 경우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숙박여행시 이용 숙박시설로는 가족/친지집이 55.3%로 가장 높고, 펜션 9.8%, 콘도 8.6%, 모텔/여관 8%, 민박 4.9%, 호텔 3.4%, 야영 2.2%로 나타났다. 여행방문지 선택시 주로 참고하는 정보는 친구/친지 권유가 60.8%로 가장 높고, 인터넷이 26.4%로 나타났다. 여행지 선택시 고려요인으로는 자연경관이 2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볼거리 다양성 24.7%, 여행 경비 9.9%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79(5점 척도)로 보통수준을 훨씬 상회하며 73.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분야별로는 숙박에 대한 만족도(3.70)가 가장 높고, 쇼핑에 대한 만족도(평균 3.19)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여행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여행분야는 볼거리/관광내용이 44.4%로 가장 높고, 관광편의시설 10%, 종사원 자질 및 서비스 9.9%, 여행비용 8.9%, 관광정보 및 안내시설 7.3%, 교통 4.3%, 숙박 3.3%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로 거론된 볼거리/관광내용에 있어 개선될 필요가 있는 요인으로는 지역별 특색/독창성 부분이 27.5%, 재미/흥미가 18.8%, 축제/이벤트 내용빈약이 16.6%로 나타났다.

내국인이 국내여행 방문지로 어느 곳을 선호하는지 조사한 결과 <표 III-2>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2008년 기준 국내숙박여행지로는 강원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기, 경남, 충남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당일여행지로는 경기를 가장 선호하며, 다음으로 서울, 경남, 충남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충남이 국내여행 방문지 선호도 순위면에서는 4위로 나타났지만, 선호도 비율면에서는 국내숙박여행에서는 떨어지고, 당일여행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여행에 대한 만족도는 72.9%가 만족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평균 3.78(5점 척도)로 보통을 상회하는 정도로 나타났다. 내국인의 다른 시도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도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의 만족도가 평균 4.06으로 가장 높고, 대전의 만족도가 3.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I-2> 국내여행 상위 방문지

(단위 : 명, %)

순위	국내숙박여행			국내당일여행		
	2008	2007	2006	2008	2007	2006
1	강원(15.7)	강원(14.0)	강원(14.3)	경기(21.9)	경기(18.0)	경기(18.8)
2	경기(13.3)	경기(12.2)	경기(13.1)	서울(13.5)	서울(13.2)	경남(12.3)
3	경남(10.0)	경남(10.5)	경남(10.0)	경남(10.0)	경남(10.6)	서울(8.7)
4	충남(8.7)	충남(9.1)	충남(9.5)	충남(7.7)	8위: 충남(5.9)	5위: 충남(8.0)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9). 2008 국민여행실태조사. p24.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지로는 <표 III-3>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2008년 기준 강원도가 가장 높으며,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순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방문 희망지역으로는 제주가 가장 높고, 강원, 북한, 경북, 전남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은 10위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지

역 방문후 재방문의사 및 타인추천의사를 물어본결과 <표 III-4>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2008년기준 90.1%가 재방문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충남지역 방문에 대한 타인추천의사에 있어서는 이보다는 다소 낮은 86%가 충남지역을 추천할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추천의사는 최근 3년간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기억에 남는 방문지 및 향후 방문 희망 상위 지역

(단위 : %)

순위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지			향후 방문 희망 지역		
	2008	2007	2006	2008	2007	2006
1	강원(16.6)	강원(12.9)	강원(15.0)	제주(34.0)	제주(31.9)	제주(34.1)
2	경기(10.6)	경기(11.0)	경기(9.9)	강원(14.0)	북한(20.6)	북한(19.0)
3	경남(9.2)	경남(7.8)	경남(9.6)	북한(13.3)	강원(14.7)	강원(14.9)
4	경북(8.0)	경북(7.6)	경북(8.3)	경북(9.1)	경북(6.5)	경북(6.4)
5	충남(6.9)	충남(7.0)	충남(7.8)	10위: 충남/경기(1.1)	10위: 충남(1.3)	9위: 충남(1.5)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9). 2008 국민여행실태조사. p31.

<표 III-4> 충남지역 재방문의사 및 타인추천의사

(단위 : %)

재방문의사			타인추천의사		
2008	2007	2006	2008	2007	2006
90.1	90.5	89.3	86.0	84.7	83.9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9). 2008 국민여행실태조사. p32.

충남의 내국인 관광객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5>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2004년도까지는 소폭이긴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5년 이후 통계자료가 무료관광지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내국인 방문객 수를 추정하기는 힘들으나, 충남의 유무료 관광지의 총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내국인 방문객 수도 함께 증가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전년대비 총 충남 관광객 수가 12.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감소했으리라 판단된다. 한편, 2009년도에는 충남관광객수가 89,632,694명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1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충남 보령과 아산, 태안, 당진 4개 시·군을 찾은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58%를 차지해 지역별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은선, 2010).

<표 III-5> 충남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내국인	62,566,945	65,105,850	66,849,732	26,518,424	20,853,650	22,473,924	23,379,397
외국인	654,206	755,261	670,491	515,668	519,845	752,057	740,482
내외국인 무료관광지	-	-	-	55,969,121	64,327,172	63,353,189	51,233,209
총계	63,221,151	65,861,111	67,520,223	83,003,213	85,700,667	86,579,170	75,353,088

자료 : 충청남도(2009). 2009 도정백서. p453.

향후, 충남의 내국인 관광객 수요는 <표 III-6>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2005-2010년 사이에는 2.97%, 2010-2020년 사이에는 3.34% 증가하여 2020년에는 관광객이 126,815,000명으로 증가하여 전국관광객의 14.9%가 충남을 방문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III-6> 충남 관광객 수요예측 결과

(단위 : 천명, %)

구분		2005	2010	2020
총 관광객	전국	554,400	637,328	850,264
	충남	83,003	95,339	126,815
숙박 관광객	전국	246,576	282,459	374,620
	충남	35,276	40,138	53,125
당일 관광객	전국	307,824	354,869	475,644
	충남	47,727	55,201	73,679

자료 : 충청남도(2008).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p189.

IV.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 관광기반구조의 확충 및 강화

충남의 관광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관광사업체는 대체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관광숙박업의 경우 총 수용인원도 부족하고 과반수이상의 숙박시설이 아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인 천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충남관광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서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이 호텔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시각에서 충남에 최고급 숙박시설인 특1급호텔의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있지만(한중구, 2009), 관광상품의 가격경쟁력을 고려하고 현 관광숙박업 이용률이 44%인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충남을 찾는 관광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광객 유치에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행사는 국민의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업체가 전국의 총여행업체 중 3%만이 존재할 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일반여행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충남이 일본과 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면서 외국인 유치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담 지정여행사와 체결을 맺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함학섭, 2010), 도내 일반여행업체를 유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변화하는 관광여가행태에 부응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는 관광객이용시설업, 기타 관광진흥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관광편의시설업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역적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교통기반구조 확충

충남의 대외적 입지여건은 환해양권 중심에 위치한 요충지일 뿐 아니라 대내적 입지여건은 국토의 중심부이면서 교통의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먼저, 대외적 입지여건의 장점을 살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관광객을 송출하는 중국과 일본간의 교류잠재력을 현실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더 활발한 교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관광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충남 서해안 지역에 국제여객터미널 개설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관광상품의 가격경쟁력은 주변 국가와 비교하여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충남이 교통의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속도로 사업의 충남의 다른 지역도 연계해 줄 수 있는 연결도로 건설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09년 5월 개통된 대전-당진, 공주-서천 고속국로 개통에 따라 해당지역 관광객이 증가됨에 따라 이러한 효과를 주변 지역에서도 함께 누리고자 하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두 고속국도의 개통은 충남을 1시간 권으로 단축시킴으로써 기존에 숙박관광목적지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던 당일관광목적지로서의 매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일부시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숙박관광지 감소를 고려해 보았을 때(나인문, 2009) 경쟁력 있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연결도로 건설을 추진한다면 새로운 관광코스가 개발될 수 있으며 기존의 숙박관광지로서의 입지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사계절 경쟁력 있는 해안관광자원의 육성

충남은 다양한 자연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원유형에 따라 관광객의 반응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충남을 대표하는 자연공원인 국립공원(태안해안, 계룡산) 2곳 모두 전체 국립공원의 방문관광객 수와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중간 이하의 환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안해안의 경우 전국의 20개 국립공원 중 관광객 이용률이 대체적으로 낮았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7년에는 최하 수준을 나타내었다. 해수욕장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사고이후 급락하였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충남 관광객이 여름 휴가철 충남의 서북부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최일, 2010), 특정 계절 외에도 관광객을 끌 수 있는 관광상품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작업은 특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도 가능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들이 동반적으로 확충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태안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이 착수되었고, 서해안 초광역개발지역의 글로벌 관광거점 도시로 지정된 만큼 태안의 관광개발사업이 향후 충남 해안관광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경쟁력 있는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자연휴양림은 전국의 시도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온천의 이용률도 전국 온천 중 거의 수위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연휴양림과 온천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은 누구보다 건강과 웰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광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객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 개발을 통해 그들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재방문율을 높일 뿐 아니라 국내 관광객의 여행지 선택시 가장 큰 고려요인으로 파악된 구전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연휴양림과 온천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을 단순히 휴양림 방문과 온천만 즐기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의 주변관광지와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의 매력성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축제의 내실화 및 집중화

충남에서는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70여개의 각종 향토문화 축제를 개최된다. 그러나 일부 축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축제들이 지역단위 행사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행사에 참석한 관광객들을 오히려 발길을 끊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평가과정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축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표에서 예비까지의 평가를 받아 지원받고 있는 7개의 축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외국인 관광객 모두의 가장 큰 관심을 불러 모았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난 보령머드축제와 공주부여백제문화제(대백제전)는 충남을 대표하는 축제상품으로 보다 내실 있게 육성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공주부여백제문화제를 통해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충남 관광객의 관심을 충남의 대표적인 백제문화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대표산출물과 연계된 금산인삼축제는 특히 내국인 관광객의 높은 관심과 더불어 가장 높은 경제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농산물인 만큼 향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양한 문화자원의 차별화된 관광상품화

충남에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이러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광산업과 연계시키는데 있어서는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충남은 백제문화권 중심으로 내포문화권과 기호유교문화지구, 기벌포 문화유적지 정비, 종교유적지 명소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0 대백제전을 통해 백제문화 알리기에 주력하면서 해안관광의 이미지가 강한 충청관광을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사업이 진정한 충남의 대표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기존 문화관광지와의 차별성을 추구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순히 조성되어 있는 유적지를 보는 수준에서 관광자원화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충남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적 효과까지 끌어낼 수 있도록 관광객의 체험과 참여를 유도하고 동시에 재미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문화관광자원은 자연자원이나 시설자원과의 연계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국내여행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지역별 특색, 재미와 흥미, 이벤트 등의 빈약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더욱이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7. 4대강 사업과 연계한 금강주변지역 활성화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권 금강역사·문화·생태관광벨트 사업을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연계해 충남에서 상대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하지 못했던 금강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을 활용한 새로운 여가공간을 창출하여 충남 전체의 약34% 관광매력물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금강 주변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강철새도래지나 신성리갈대밭, 백제문화와 같이 대표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테마와 연계한 관광상품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주변지역 농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해 관광농원,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인공적인 개발을 최소화하고 생태적인 관광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다변화 되고 있는 관광객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 영향력이 큰 드라마, 영화의 소프트웨어로 마케팅 강화

충남의 관광진흥을 위한 2008년 2009년 주요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관광이미지 개선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홍보에 역점을 두고 주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역, 지하철, 공항 등에 옥외광고와 국내외 우수 관광박람회 참가하여 충남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일본, 중국, 미국 대상 충남관광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여행관계자, 국내 중앙지방 언론사 등을 초청해 충남 유명 관광지를 답사 및 설명회개최와 더불어 팸투어를 통해 행사와 축제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충남의 홍보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 차원의 마케팅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강력한 영향력을 단기적으로 발산하여 과급효과를 급상승 할 수 있는 방법으로 TV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와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이때는 오픈세트장 건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투자보다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충남의 관광자원을 표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투자해가며 앞다퉈 유치한 영화나 드라마 오픈세트장들이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 한 두 편을 찍고 난 뒤에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등 초라한 경영성적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김영인외, 2010). 현재 충남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일본과 중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도 내국인의 매력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VI. 결론

충남은 현재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배경은 충남의 의지도 있었으나 이러한 의지를 받아들인 정부의 국책사업으로의 연계는 향후 충남관광산업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 충남은 지금까지 대내외를 연결하는 국토중심부 교통의 요충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능성을 저평가 받았을 뿐 아니라 연계도로의 부족 등으로 인해 주변의 대규모 관광수요를 제대로 끌어들이지 못하였다. 또한, 서해(해안) 외 충남 곳곳에 다양한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력성을 관광산업과 연결하는 작업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발산하기 위한 다각도적인 관광개발사업과 관광상품의 개발노력은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정들이 아직 구체적인 가시적 효과를 논하기 어렵지만 충남 관광행정이 2010년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다음 단계에서 더 발전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 관광산업의 현위치를 분석해 보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충남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첫째, 관광기반구조의 확충 및 강화, 둘째, 지역적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교통기반구조 확충, 셋째, 사계절 경쟁력 있는 해안관광자원의 육성, 넷째, 경쟁력 있는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다섯째, 축제의 내실화 및 집중화, 여섯째, 다양한 문화자원의 차별화된 관광상품화, 일곱 번째, 4대강 사업과 연계한 금강주변지역 활성화, 여덟 번째, 영향력이 큰 드라마나 영화의 소프트웨어로 마케팅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분석의 결과가 충남 관광산업 발전의 모든 부분을 대변해 줄 수는 없다. 단지, 부분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그 어떤 방안들도 환경적, 사회적·문화적,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가치를 발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참 고 문 헌〉

- 국무총리실 외(2009).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자료.
- 국토해양부 등(2009). 동·서·남 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충청남도(2008).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 충청남도(2009). 충남도정.
- 한국관광공사(2009). 2008 국민여행실태조사.
- 한국관광공사(2010). 2009 외래관광객실태조사.
-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10. 4. 21). 관광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stat.tour.go.kr/ptour1/index.do>
- 강은선(2010. 2. 23). 충남 외국인 관광객 쏠림 심각. 대전일보.
- 김영인, 지성호, 조성민, 김경태, 신재우, 손대성, 최정인, 김지선(2010.01.22). 지자체 투자
 오픈세트장들 대부
 분 '썩박'. 연합뉴스.
- 나인문(2009. 5. 22). 사통팔달 충남 관광·문화지도가 확 바뀐다. 충청투데이.
- 최일호(10. 2. 5). 충남 관광 여름철 서해에만 반짝. 충청투데이.
- 한중구(2009. 8. 8). 관광 충남에 특급호텔이 없다. 대전일보.
- 함학섭(2010. 02. 20). 외국인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10개사 지정 MOU체결. 충북일보.